

정부가 연기금 및 국부펀드와 원화거래 수요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5.6.25. 연합뉴스는 「NPS·KIC 총출동 런던외환시장 실무협의체... 시장 접근성 개선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정부가 역외 외환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(NPS)과 한국투자공사(KIC)에 지원을 요청했다.”면서, “최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원화 거래 수요가 큰 연기금과 국부펀드까지 총동원해 시장 활성화에 힘을 더하겠다는 의미”라고 보도

<기획재정부 입장>

- 정부는 런던을 포함하여, 홍콩·싱가폴·뉴욕 등 주요 글로벌 금융허브에 진출한 기관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외환·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
 - 특히, 지난 '24.7월부터 외환시장을 대외 개방하고 거래시간을 새벽 2시 까지 연장한 이후 외환시장 개방의 성과 및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*(RFI) 현황 점검 등을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해 왔습니다.
- *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: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하여 거래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
- 그러나, 정부가 원화 거래 수요가 큰 연기금 및 국부펀드와 원화 거래 수요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	책임자	과 장 정여진 (044-215-4730)
	외화자금과	담당자	사무관 김용준 (kimyj1011@korea.kr)
	기획재정부	책임자	서기관 손정혁 (f15strike@korea.kr)